

CEO는 자연을 듣는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CEO의 지도력은 변설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그런데 경청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바삐 돌아가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각 방면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모든 소리를 현실적으로 만족스럽게 들을 시간도 충분치 않거니와 인간으로서 한계도 있다. 더욱이 CEO에게 올라올 소리라면 다듬어져서 모두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옥인지 돌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고명한 이름을 떨쳤던 노학자가 복마전이라는 서울을 경영하는 CEO, 그것도 민선시장으로 뽑혀 앉았다가 웃음거리가 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단순한 어린 대학생들 앞에서야 먹혀들었던 알량한 허명으로 목에 힘이 들어간 때문이다. 또는 학문이 남의 나라 것으로 우리 현실에는 헛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4,50대의 노련한 관료들의 포장된 소리를 구별치 못하고 결국 명청했던 것이다. 더구나 고도의 현실 정치 산물로 꼭두각시처럼 당선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순진한 콤플렉스 때문이다. 그 후 행적을 보면 짐작이 간다. 현실은 교과서처럼 그리 단순치 않다. 그만큼 철저한 겸손이 필요하다.

무상심을 지녀야 경청 가능

노자는 일찍이 리더의 약하고 유연한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고정된 마음이 없다. 즉, 무상심(無常心)이다. 오로지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

목이 뾰뚱한 관료와 정치지도자 그리고 기업의 CEO들이 명심해야 할 귀한 말씀이다. 명경지수(明鏡止水). 밝은 거울과 잔잔한 물이라는 뜻이다.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가리킨다.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 왕태(王駘)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많았다. 그 점을

불만스럽게 여긴 공자의 제자 상계(常季)가 스승에게 말했다.

“그는 서 있어도 가르치지 않고 앉아 있어도 대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빈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다가 뭔가 얻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가 답했다. “원래 ‘말 없는 가르침’이란 게 있느니라. 속으로 완성된 마음의 소유자는 그것이 가능하다. 흐르는 물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명경지수라야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분에게 사람이 꺾는 이유이니라.”

명경지수해야 세상 흐름 들어

아무리 세상이 소란하고 바빠 돌아가도 CEO는 명경지수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 흐름을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 얼마 전 대구 지하철의 화재사건이 있었다. 완전히 안전에 무방비 상태였다. 그것은 무책임과 부조리 그리고 사회적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여론 조사에 10명 중 4명은 이민 가고 싶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가경영자는 이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야 한다. 그와 같이 기업의 CEO는 종업원과 고객의 소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빠 돌아갈수록 낮아지고 맑은 거울이 되어야 한다. 노조의 함성도 그래야 잦아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순풍에 배 흐르듯 경영이 순조롭게 된다. 그럴 때라도 늘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하버드대 코터 교수가 지적한 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충고를 새겨보자.

“개혁을 성공하려면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일찍 삼페인을 터트리면 만사 끝장이다.”

또 대자연의 숨소리도 잘 들어야 한다. 이제 개발의 망치소리 못지 않게 바람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꽃봉우리 터지는 소리가 중요하다. 자연을 아끼고 가꾸어야 자연이 보답한다. 환경라운드를 규제나 잔소리로 인식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음이다.